

“의료 공백 상태 전남에 의대 신설” 촉구

전남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지역 의대 설립 문제를 같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문을 내 “의료 공백 상태인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지역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충과 같이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 발인 환영 입장문’을 통해 “2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환영 입장문에서 전남도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하지만 지방의료원과 지역 병원은 의사 구인난을 겪으면서 기초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있고 공중보건의 지속 감소로 사실상 의료 공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3년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지역 거점 컨트론타워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국립의과대학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는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고령화와 지방의사 부족, 팬데믹 등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공공성이 담보된 국립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고 의료 공백 상태에 직면한 전남에 지속 가능한 의료 기반이 갖춰지도록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 의대 요구가 많다”며 “그래서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공공의대는 2020년 논의할 때 쟁점사항이 있었다”며 “입학 과정에서 불공정성 우려나, 지역의사제를 강제로 했을 때 위한 가능성과 실효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확충때 지역 의대 설립 고려” 도 환영 입장문...“필수 의료인력 지역 정착 토대 절실”

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4개 안건 중 하나지만, 지난 1월 시작한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대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의사협회는 최근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은 빠져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의사단체와 먼저 협의하는 것은 2020년 9월 의정협의 때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의대 정원 증원을 협의한다는 약속이 있어서”라며 “앞으로 인원 추계 절차 등에서 의사단체 외에 환자,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UN참전국기 입장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6·25 한국전쟁 73주년 행사가 25일 오전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보훈단체장, 육군 제31사단장, 기관·단체장,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31사단 장병들이 UN참전국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광주·전남서도 6·25 전쟁 73주년 기념행사

광주·전남에서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는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강기정 시장, 이정은 광주시교육감, 보훈가족,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한국전쟁 73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은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라는 주제로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모범유공자 표창, 기념사,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내 외 호국 영웅께 경의를 표한다”며 “그리움과 슬픔의 긴 세월을 자강심으로 견뎌 온 유가

족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이날 장흥군민회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에는 문금주 행정부지사, 김성 장흥군수, 참전용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 부지사가 국가보훈부에서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6·25참전유공자회 김춘일 전남도지부장과 신천군 장흥지회장에 직접 입혀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 2천300여명에게도 올해 6월부터 세 제복

이 지급되고 있다.

문금주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호국 영웅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힘차게 열겠다”며 “보훈선양팀을 신설해 유공자 예우에도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부지사는 또 “전남 국립호국원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힘쓰고 애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과 선양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 사진 전시회, 목포에서 해군 제3함대와 함께하는 호국 문화제, 순천지역 나라사랑 인증 여행대회 등을 열고 있다.

/김재정·박선강기자

6곳 신청...광주 자원회수시설 경쟁 치열

적격 확인 후 입지 선정 절차...시, 1천억 이상 지원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 공모에 총 6곳이 신청서를 접수해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25일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6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신규 입지를 찾기 위해 지난 4월25일부터 6월23일까지 60일간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개인 4곳, 법인·단체 각 1곳이 신청서를 냈고, 자치구별로는 서구 2곳, 동구·남구·북구·광산구 각 1곳이다.

광주시는 복수 후보지가 신청됨에 따

라 입지 선정 절차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지에 대해 공모 기준에 따라 주민동의요건, 면적 등을 1차 확인한다.

1차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0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필수 시설인 자원회수시설(소각)의 안정적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광주지역에 홍보영상 송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오픈형 용역 보고회 개최, 타 지역 선진시설인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견학 등을 실시했다.

또한 입지 후보지 공모에 주변 주민을 위한 600억~800억원 규모의 편익시설 설치, 300억원의 주민숙원사업과 해당 시설이 입지할 자치구에 200억원 규모 등 총 1천억원 이상 지원을 약속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광주시·시의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사

영산강·황룡강 와이벨트 8km 동행

민선 8기 광주시와 제9대 광주시의회가 영산강 수변길을 걸으며 ‘새로운 광주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에 함께하기로 의기투합했다.

광주시는 25일 “지난 23일 영산강 수변길에서 강기정 시장과 간부 공무원, 정무청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 1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광주시 출범과 제9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무청 의장이 강기정 시장에게 제안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권역 와이(Y)벨트 사업이 구현될 영산강·황룡강 인근과 궁곡항 부지 주변 등 영산강 수변길 8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기정 시장은 “집행부와 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민생경제 살리기는 물론 새로운 광주를 위한 혁신의 길에 함께 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힘을 보탬 일이 있으면 협력했다”며 “광주시와 시의회가 진정한 개혁의 동반자로 나아가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정무청 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며 광주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광

주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눈에 보이는 광주의 변화를 함께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박선강기자

고흥 송광암 목조불·보살좌상 도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전남도는 25일 “고흥 송광암 목조불·보살좌상”을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성 죽곡정사 연평담문보통’ 등 6건을 문화재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흥 금산면에 있는 ‘고흥 송광암 목조불·보살좌상’은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구, 목조대세지보살 2구 등 총 3구다. 보배, 색나 등 조선 후기 대표 조각승의 작품으로 제작 시기가 명확하고 작품성이 매우 뛰어나다. 조선 후기 조각승과 불교 조각사 연구 등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지정됐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팡 김현정(961005-2*****)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3-년3651 상속한정승인
○공 고 안: 김영민
○한정승인수리일: 2023년 6월 23일
○공고기간: 2023년 6월 26일 ~ 2023년 8월 26일
○연 락 처: 전남 구례군 간전면 삼산산정길 40 (010-8680-6465)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 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본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모임 상담▶

정차적 편의 법정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화순읍 대단지 아파트입구 빌딩부지를 급처분합니다.

- 1) 주거1종 대지1,505㎡
- 2) 2차선 도로변 앞면넓이 직사각토지
- 3) 유동인구 많음
- 4) 지상물 전무 내대지 바로 건축 가능
- 5) 병의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차빌딩 등 다용도부지
- 6) 매매가: 원매자 상담후 시세이하 [급급처분]합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마약,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